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5년 연속 500만 달성

‘시민주도 순천만갈대제’ 대성황 이뤄



순천시는 지난 27일 주말을 기점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찾은 관람객이 작년보다 19일 빠르게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5년 4월 개장한 이후 5년 연속해서 관람객 500만 명이 넘는 관광파워를 자랑하며 전국 최고의 관광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작년보다 19일 빠르게 500만명 관람객을 달성한데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특색 있게 진행된 ‘순천만갈대제’의 영향이 컸다.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순

천만 갈대제’는 순천만권역 주민과 시민이 함께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의 후원으로 순천만습지와 와온, 화포해변에서 ‘갯벌, 갈대에 흐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3일 동안 순천만습지에만 18만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365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야생동물원에서 운영되는 동물교감 체험프로그램, 순천시생태관광체험센터에서 운영되는 정원 꽃씨약국, 한방체험센터 한방치유 및 한방체험, 시민

과 함께 가꾸는 숲 정원 조성을 위해 ‘아이나무 심기’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정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 왔다.

가을 관광시즌을 맞아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평일은 하루 평균 2만명, 주말에는 5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찾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시원한 가을 바람처럼 전국의 관람객들이 꾸준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를 찾아 지난 주말 이들 동안 23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가을꽃 관광 전국 최고의 명소임을 확인했다.

가을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완연한 가을 분위기를 풍기는 역새와 단풍 뿐만 아니라 동문과 서문입구 국화 이야기와 나눔숲에 넓게 펼쳐진 핑크몰리로도 만날 수 있다. 무르익은 가을 정원과 어울려 사진을 찍는 관람객들의 표정은 가을정취만큼이나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여유로워 보인다.

가을맞이 가족 여행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과 어우러진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이곳 저곳의 매력 있는 풍경에 가족들 모두 즐거워 한다”며 머리 위 하트를 그렸다.

구례군, 자존감 향상 위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 실시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동안 각 학교 또래상담자 및 청소년 29명을 대상으로 구례산수유 산림휴양관에서 ‘자존감 향상을 위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배

려, 비행, 요즘친구, 청소년 인권’ 5개의 키워드를 주고, 각 모둠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모둠별 토론을 통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5분 분량의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이그나이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리더십 캠프를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동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협동심을 길러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높은 자신감 형성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에 주말이면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이번 캠프에 참여하여 청소년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면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2회째 실시된 자존감 향상 리더십 캠프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보성군,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11주년 북토크 개최

오는 31일 열리는 별도 조각축제&문학축제의 일환으로 11월 2일에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에서는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개최된다.

이번 북토크는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1주년을 맞아 ‘우리 현실과 천년의 질문’이란 주제로 실시된다. 기념식에는 소설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작가가 참석하여 애독자와 함께 소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기념식 후에는 문학축제 무대에서 제1회 조정래 문학상 시상식이 준비돼 있다. 또한, 태백

산맥 전국 백일장 우수작을 시상하고, 소설 태백산맥 10권을 필사한 독자(개인 5건)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태백산맥 전국 백일장은 ‘통일’을 주제로 운문, 산문, 그리기 부문 등으로 지난 9월 28일,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치러졌으며, 그 열기는 뜨거웠다. 총 100여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시은품이 수여된다.

소설 10권을 필사한 독자(개인 5건)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된다. 올해 기증된 5건을 포함해 현재

태백산맥 문학관에는 총 39권의 기증 필사본이 전시돼 있다.

태백산맥문학관 2008년 11월 21일에 개관하여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았다. 누적 관람객은 69만 명이며, 전국 문학기행 1번지로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문학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태백산맥문학관의 11년을 기념하고, 독자와 태백산맥문학관의 유기적 소통과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귀농어·귀촌 마을 찾아가는 맞춤형 융화교육 실시

3개 마을 80여명 대상 갈등해소 전문가 초빙

고흥군은 지난 23일 귀농어·귀촌인과 주민간의 갈등 관리를 위해 2019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외부전문가를 초청 도덕면 장전마을 등 3개소 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융화사례,

갈등관리 등 주민 참여형으로 교육과 대화로 진행된다.

이번 찾아가는 융화 교육에 전북 농촌공간 최민규 대표와 장성군 귀농귀촌협의회 김광연 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타 지역에서 귀농어 귀촌인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하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과 대화로

현장에서 공감을 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0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전 읍면으로 확대하여 현장견학, 체험활동 등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귀농어, 귀촌인들과 마을주민들이 상생하여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곡성군, 토란도란 마을 축제 개최



내달 9일 죽곡면 봉황섬터다.

오는 11월 9일 곡성군 죽곡면 대항강 봉황섬터에서 제2회 토란도란 마을축제(이하 ‘토란축제’)가

개최된다.

곡성군은 우리나라 토란의 최대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곡성군에서도 대부분의 토란이 죽곡면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죽곡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가을추수가 끝날 즈음 한 해 동안 고생한 농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특산물인 토란을 방문객들에게 알리고자 작년부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토란 축제는 죽곡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자치위원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작은 축제이지만 화려한 맛은 없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맛이 있다.

별의별 토란요리 경연대회에서는 토란을 주제로 다양한 요리가 경연을 통해 펼쳐진다. 체험마당에서는 토란 인절미 만들기, 화덕에 토란 구워먹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장터마당에는 토란 외에도 곡성의 다양한 농산물이 선보인다. 특히 먹거리 장터에서는 맛갈스런 토란 요리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토란 막걸리도 만나볼 수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번호서)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